

한국생약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

한국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 (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임연학
인쇄인 인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TEL: 967-8133 FAX: 965-0643

1999년 7월 1일

THE HANKOOK-SAENGYARK 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234호

농민 판로허용 어디까지?

규제개혁위, 관리규정 막바지 절충작업 돌입

지난 94년 36개 품목에 대한 규격화 고시를 시작으로 확대시행(514개 품목)에 들어간 96년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닦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해온 한약재 규격화제도가 최근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무엇보다 규격화제도 시행을 위한 관리규정 자체가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속에서 사실상 의면당하고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격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해야 하는 지정 품목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품목(18개)의 국내산 한약재」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설립한 생약가공 공장에서도 제조할 수 있도록 약사고용과 실험실 보유 등의 조건을 완화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한약재는 규격화제도에 의한 규격품으로 가름하고 한약방이나 한의원등에 직거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이같은 안은 최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약용작물(한약재)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선안" 내용에 따른 것. <관련기사 3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얼마전 보건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한약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약용작물 규제개혁 관련 토의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이 99년 용역과제로 실시한 '약용작물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 개선안'을 놓고 타당성

을 검토했다. 규격화제도 시행과 관련해 개선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에 따르면 현재 허가된 규격품제조업소는 172개소인데 평균 가동율은 약15%에 불과하여 당초 기대했던 규격화의 중추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격품제조업소를 통해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된 69개 품목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18개 품목은 국산한약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수차·법제나 오남용 우려 품목외에 단순가공 품목까지 규격품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측은 이에 대해 "한약은 약사법상의약품이고 한약재 제조업은 약사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생산농민이나 단체도 규격품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제조업 허가를 득해서 약사법 테두리 안으로 편입하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이번 회의에서도 생산농민의 자유로운 판로부분에 대해 적절한 타



◆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한국생약협회는 5월26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화악산에서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행사를 개최했다. 생약초에 관심있는 일반인 1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경희대 한의대 안덕균 교수의 특강과 약초생태탐사 등으로 이뤄졌다.

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생약가공공장에 대한 약사법상의 규격품제조업소 허가는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다소 허울좋은 뜻을 내비쳤을 뿐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원료 사용제한 품목의 범위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는데 개선안에 따르면 천마, 음약박, 하수오, 삼백초, 어성초등 국내외에서 오래전부터 술이나 차등으로 식용해온 약용작물에 대해 식품원료 사용을 허용해야 할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로 안정성 및 건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없이 상당수의 동·식물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서 농가소득원 창

출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민원제기에 따른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통적으로 복용하는 약용식물에 대한 객관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제기된 품목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기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규격화제도시행에 따른 한약재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농민들 자가규격품 판로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처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지만 '농산물'과 '의약품'으로의 구분이 모호한 한약재의 태생적 한계상 속시원한 절충안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정희>

지면안내

- 규제개혁위원회 / 약용작물(한약재) 규격화제도 개선안 전문 3면
- 무더위 쫓는 '생맥산' 차 4면
- 재배교실 - 삼백초 5면
- 특별기고 / 생체방어물질 함유 수종들 6면

새로운 밀레니엄, 2천년대의 안정된 선택!

당신의 밝은 노후, '생약인 우대연금보험'이 함께 합니다.



한국생약협회 회원 및 가족만을 위한
「생약인 우대연금보험」 탄생!
밀레니엄상품으로 최고의 수익률 자랑!

'99. 6. 28. 한국생약협회,
교보생명과 개발·시판 조인식 거행!

한국생약협회는 회원 및 가족이라던
누구나 밝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약인 우대연금보험」을 개발의뢰,
'99.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생약협회, 회원 및 가족만을 위한 혜택

- 1) 한국생약협회 회원 및 가족만을 위하여 특별히 주문 제작된 상품임
- 2) 연금보험상품 최고의 수익율임
 - 부리아율 : 약관대출이율 - 1.5%
 - 고액의 생존연금 지급
- 3) 다양한 설계가 가능함
 - 상속연금형 : 원금은 상속자금으로 활용하고 이자만으로 연금혜택
 - 종신연금형 : 종신토록 연금지급
 - 확정연금형 : 일정기간 고액의 연금수령 가능
- 4) 입출금이 자유로운 밀레니엄 보험상품임
 -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부리 가능
 - 내집 마련, 자녀학자금 등 긴급자금 필요시 자금인출 가능
- 5) 보험료 납입이 자유로움
 -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 보험료 납입시기도 계약자 편의대로 자유로이 납입
- 6) 일시납 불입시 1년후부터 연금수령 가능
- 7) 보험료 할인혜택 부여(매월 납입보험료의 1%)
- 8) 5년 초과시 이자소득세 전액면제

한국생약협회 교보생명

* 문의처: 본사 특수단체영업팀(02)721-2348, 개인영업팀(02)721-2236, 강북지역본부(02)2290-4134, 강남지역본부(02)3473-8070, 경인지역본부(032)430-4130, 부산지역본부(051)811-7130, 대구지역본부(053)620-7508, 중부지역본부(042)229-5503, 호남지역본부(062)510-6530